

Sports

10년前 세리 언니 보고 골프 시작한 박인비

## US여자오픈 최연소 우승

메이저 대회서 LPGA 진출 후 첫 정상 올라

전날 선두 美 루이스 5타차 따돌리고 역전승

박세리(31)가 맘발 투호으로 US 여자오픈을 제패하면서 광경을 즐긴 눈을 비비며 지켜봤던 10살짜리 꼬마가 10년 만에 US여자오픈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10년 전 박세리의 우승 모습을 보고 골프를 시작한 신세대 박인비(2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첫 우승을 메이저대회에서 일궈낸 위업을 달성했다.

박인비는 지난달 30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에디나 인터내셔널골프장(파73·6천 789야드)에서 열린 제63회 US여자오픈골프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2언더파 71타를 쳐 나흘 동안 유일하게 언더파 스코어를 기록한 끝에 합계 9언더파 283타로 역전승을 거뒀다.

같은 조에서 출발한 43세의 베테랑 헬렌 알프레드슨(스웨덴·5언더파 287타)을 4타 차 2위로 여유 있게 따돌린 박인비는 LPGA 투어에서 가장 많은 상금이 걸린 이 대회(총 상금 325만달러)에서 58만5천달러를 손에 쥐었다.

박인비는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로 한국 사회가 고통을 받은 시기에 LPGA 투어에서 맹활약하며 희망을 줬던 박세리를 보고 골퍼의 꿈을 키워온 이른바 ‘박세리 키드’ 세대. 박인비는 분당 서현초등학교 때 각종 주니어대회에서 우승을 독차지했고 2000년 겨울 처음 활약한 국가대표 상비군에 뽑혔으며 사업가인 아버지를 한국에 남겨 두고 어머니 김성자(47)씨와 함께 2001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1988년 7월23일생으로 만20세가 안된 박인비는 1998년 박세리가 맘발 투호로 우승하며 물꼬를 뚫고 2005년 김주연(27)이 72번째 홀에서 환상의 병크샷 버디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이 대회에서 한국인 우승자 계보를 이었다.

대회 역사상 만20세가 안된 선수가 우승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US여자오픈 최연소 우승자 기록은 박세리가 갖고 있었다. 2006년 2부투어인 퓨처스투어에서 상금 랭킹 3위에 오르면서 2007년부터 LPGA 투어 출전권을 확보한 박인비의 첫 우승이자 한국인으로서는 박세리, 박지은(29·나이 키골프), 김주연, 장정(28·기업은행)에 이은 다섯번째 메이저 퀸.

한국자매들은 이달 초 이선화(22·CJ)가 긴트리뷰트 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지은희



지난달 30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제63회 US여자오픈골프에서 박인비가 역전 우승을 차지한 뒤 우승컵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2·홀리코리아)의 웨그먼스LPGA 우승 뒤

1주만에 다시 정상에 오르는 등 6월 동안 우승컵 세개를 훔겨 하반기 전망을 밝게 했다.

김인경(하나금융)과 브라질 교포 안젤라 박(LG전자)이 4언더파 288타로 공동 3위, 김미현(31-KTF)은 3언더파 289타로 공동 6위에 오르는 등 톱10에 모두 4명이 포진하면서 코리안 파워를 과시했다.

이지영(23·하이마트)은 이븐파 202타로 공동 13위, 신지애(20·하이마트), 최나연(21·SK텔레콤), 장정은 2오버파 294타로 나란히 공동 19위에 자리했다. 전날 선두였던 스테이시 루이스(미국)는 4언더파 288타로 공동 3위에 올랐다.

한국자매들은 이달 초 이선화(22·CJ)가

긴트리뷰트 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지은희

### 이명박 대통령 축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미네소타주 에디나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US여자오픈골프대회에서 우승한 박인비(20) 선수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축전에서 “탁월한 기량으로 대회 최연소 우승이라는 영광을 안은 박 선수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보배”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드높이는 훌륭한 선수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국자매들은 이달 초 이선화(22·CJ)가

/연합뉴스



■ KIA 금주의 프로야구

## 거물들 복귀…5위 ‘노크’

윤석민·최희섭 등 합류

전력 재정비 상승세 기대



1~3일  
광주  
4~6일  
대구

로 6월을 마감했다.  
차포(車包)가 빠진 상황에서 나름대로 선방했지만 ‘2%’의 아쉬움은 남는다.  
중간계투진 보강과 타선의 응집력 제고라는 두 가지 숙제를 얼마나 풀어내느냐가 ‘사생결단’ 7월을 맞는 KIA의 성적을 좌우할 전망이다.

분위기 쇄신을 갈망하는 KIA는 7월을 시작하는 1일 에이스 윤석민을 19일 만에 마운드에 올린다.

7월이 KIA 4강 진입을 위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인 지에 팬들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프로야구 중간순위 (6월 30일 현재)

순위	팀	필	승	패	무	승률	개인차	연속
1	S K	52	21	0	0	0.712	0.0	1승
2	두산	41	30	0	0	0.577	2.0	1승
3	롯데	38	33	0	0	0.535	13.0	1승
4	현화	40	36	0	0	0.526	13.5	1패
5	삼성	37	39	0	0	0.487	16.5	2승
6	KIA	33	42	0	0	0.440	20.0	1패
7	우리	30	43	0	0	0.411	22.0	3승
8	L G	25	52	0	0	0.325	28.0	3패

‘5위 고지에 오르기 위한 승부수’  
KIA 타이거즈가 이번 주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을 준비한다. 상대는 최하위권의 우리 히어로즈와 잡힐 듯 잡힐지 않는 5위 삼성 라이온즈다.

이번 주 광주와 대구에서 5할을 밟도록 승률을 바짝 끌어올려야 하는 KIA는 오른쪽 어깨 근육통으로 한동안 마운드를 비웠다 돌아온 에이스 윤석민을 펼칠 때 마운드 재정비에 나선다.

최근 2군 경기에서 커디션이 정상임을 확인했던 최희섭도 복귀 조망하기에 들어갔고, 투기 나지완은 지난달 29일 프로데뷔 첫 홈런포를 쏘아올리는 등 타선도 살아날 조짐이다.

KIA는 이번 주 7위 우리와의 홈경기에서 최대한 승수를 쌓고 지난달 30일 현재 3.5개임차인 삼성과의 대구 원정에서 선전한다면 5위 진입까지도 가능하다.

삼성과의 시즌 전적은 4승4패로 호각지세. 그러나 삼성은 마운드 불펜과

## 보성여중 최다혜 3관왕

### 여중 53kg급 대회新

문광부장관기 역도

최다혜(보성여중 3년)가 제3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시·도 학생여도경기 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3관왕에 올랐다.

최다혜는 지난달 30일 강원도 양구 용하체육관에서 열린 여중부 53kg급 인상(64kg)·용상(80kg)·합계(144kg)에서 각각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며 3관왕에 올랐다.

이전 기록은 지난 34회 대회에서 조슬기(대전)가 인상·합계에서 세웠고, 이우리(서울)가 용상에서 기록을 보유했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일(화)

▲ 대통령배 남녀 중고배구 결승(12:50-SBS스포츠)

▲ 제1회 아시아대학 핸드볼 선수권 결승(15:50-Xports)

▲ 2008 프로야구 SK : LG(18:00-KBS N SPORTS) <우리 : KIA>(18:20-SBS스포츠) <두산 : 한화>(18:20-Xports) <롯데 : 삼성>(18:20-MBC ESPN)

2일(수)

▲ 대구 국제육상 경기장에서 100m, 200m, 400m, 800m, 1500m, 3000m 등 종목별 경기

▲ 2008년 7월 1일(화) 10:00~17:00

▲ 2008년 7월 2일(수) 10:00~17:00

▲ 2008년 7월 3일(목) 10:00~17:00

▲ 2008년 7월 4일(금) 10:00~17:00

▲ 2008년 7월 5일(토) 10:00~17:00

▲ 2008년 7월 6일(일) 10:00~17:00

▲ 2008년 7월 7일(월) 10:00~17:00

▲ 2008년 7월 8일(화) 10:00~17:00

▲ 2008년 7월 9일(수) 10:00~17:00

▲ 2008년 7월 10일(목) 10:00~17:00

▲ 2008년 7월 11일(금) 10:00~17:00

▲ 2008년 7월 12일(토) 10:00~17:00

▲ 2008년 7월 13일(일) 10:00~17:00

▲ 2008년 7월 14일(화) 10:00~17:00

▲ 2008년 7월 15일(수) 10:00~17:00

▲ 2008년 7월 16일(목) 10:00~17:00

▲ 2008년 7월 17일(금) 10:00~17:00

▲ 2008년 7월 18일(토) 10:00~17:00

▲ 2008년 7월 19일(일) 10:00~17:00

▲ 2008년 7월 20일(화) 10:00~17:00

▲ 2008년 7월 21일(수) 10:00~17:00

▲ 2008년 7월 22일(목) 10:00~17:00

▲ 2008년 7월 23일(금) 10:00~17:00

▲ 2008년 7월 24일(토) 10:00~17:00

▲ 2008년 7월 25일(일) 10:00~17:00

▲ 2008년 7월 26일(화) 10:00~17:00

▲ 2008년 7월 27일(수) 10:00~17:00

▲ 2008년 7월 28일(목) 10:00~17:00

▲ 2008년 7월 29일(금) 10:00~17:00

▲ 2008년 7월 30일(토) 10:00~17:00

▲ 2008년 7월 31일(일) 10:00~17:00

▲ 2008년 7월 1일(화) 10:00~17:00

▲ 2008년 7월 2일(수) 10:00~17:00

▲ 2008년 7월 3일(목) 10:00~17:00

▲ 2008년 7월 4일(금) 10:00~17:00

▲ 2008년 7월 5일(토) 10:00~17:00